

광주 상무지구 빈 상가 줄었다

공실률 2.6%P ↓ ... 임대료 가장 비싼 곳 총장로 m당 2만3700원

광주지역 상가의 올 2분기 공실률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부동산연구원(이하 부동산연구원)이 7대 특광역시와 경기 지역의 대표적 상업용 부동산인 오피스빌딩 1000동, 매장용 빌딩(상가) 2000동을 조사·발표한 '2011년 2분기 임대료 조사 및 투자수익률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의 오피스빌딩 78동(금남로 23·상무지구 15·북구 19·기타 21)과 매장용 빌딩 91동(총장로 18·금호지구 10·상무지구 23·봉선지구 10·일곡지구 10·전남대 13·첨단지구 7)을 표본 조사 결과, 전분기에 비해 매장용빌딩 공실률은 -2.2%포인트를 기록, 대전(-2.5%)에 이어 조사 대상 중 감소세가 가장 높았다. 전 상권에서 고르케 빈 상가가 감소한 것. 광주지역 매장용빌딩의 공실률은 꾸준히 낮아져 지난 2009년 1분기 전체 매장용빌딩의 공실률 17.3%에서 올 2분기 공실률은 10.8%를 기록했다. 전남대 인근의 공실률은 2009년 1

분기 20.1%에 이르렀지만 올 2분기에는 8.2%로 낮아졌고, 일곡지구도 같은 기간 16.4%에서 9.8%로 하락했다. 반면,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로 전체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지난 2009년 1분기 13.6%에서 지난해 2분기 15.2%로 높아진 후 올 2분기 전분기와 같은 17.4%를 기록했다. 금남로의 공실률 상승이 유독 심해 2009년 1분기 12.7%였지만 올 2분기에는 24.8%로 3년 새 두배 가까이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매장용빌딩의 공실률은 총장로(24.6%), 금호지구(0.0%), 상무지구(7.1%), 봉선지구(3.1%), 일곡지구(9.8%), 전남대(8.2%), 첨단지구(19.5%)로 전분기보다 총장로 1.6%포인트, 금호지구 1.8%포인트, 상무지구 2.6%포인트, 봉선지구 1.4%포인트, 일곡지구 2.1%포인트, 전남대 1.2%포인트, 첨단지구 4.1%포인트 하락했다.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금남로(24.8%), 상무지구(15.9%), 북구(15.1%), 기타(13.8%)로 금남로와 상무지구, 북구는 전분기에 비해 각각 0.5%포인트, 1.1%포인트, 1.2%포인트 상승했으며 기타지역은 1.8%포인트가 하락했다. 매장용빌딩 임대료(1층기준)도 전분기와 비교, 미미하게 상승했다. 전분기 m당 1만8600원의 임대료는 올 2분기 1만8700원으로 0.1%포인트 올랐다. 오피스빌딩(3층 이상)의 m당 임대료는 5400원으로 전분기와 비교, 변동이 없었다. 임대료(1층기준)가 가장 비싼 곳은 총장로로 m당 2만3700원을 기록했으며 봉선지구가 2만100원, 상무지구 1만9600원, 전남대 인근이 1만8900원이었다. 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광주지역 상가 공실률이 줄어든 것은 최근 임대계약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출하 앞둔 광주대표 특산물 무등산 수박

11일 광주지역 대표 특산물인 무등산수박(일명 푸랭이) 출하를 앞두고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기술에서 농민들이 무등산수박을 수확하고 있다. 올해는 3000여통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은 8kg 2만원, 16kg 10만원, 20kg 18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직판장은 15일 개장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1일 광주지역 대표 특산물인 무등산수박(일명 푸랭이) 출하를 앞두고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기술에서 농민들이 무등산수박을 수확하고 있다. 올해는 3000여통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은 8kg 2만원, 16kg 10만원, 20kg 18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직판장은 15일 개장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내 금값 또 최고치

일주일새 1돈당 2만5300원 올라



국내 금값이 일주일 사이에 2만5천 원 가량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 금지금업체인 신한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 소매가는 소비자당 살 때 3.75g(1돈)에 24만 8600원(부가가치세 10% 제외)으로 전날보다 7700원 올라 사상 최고가 됐다. 금값은 앞서 4일에는 22만3300원이었으며 1주일 만에 2만5300원이나 올랐다. 소비자당 같은 양의 금(순도 99.9% 골드바 기준)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기간에 20만2500원에

서 22만5000원으로 2만2500원 상승했다. 한국금거래소 최은규 부사장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제로금리 조치도 효력이 하루 만에 다하고 위기를 타개할 만한 카드가 3차 양적 완화밖에 없을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심리와 증시가 하루 만에 일제히 급락하면서 생긴 불안심리가 금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금값은 앞서 9일 하루 만에 1만2000원 올라 24만3200원였으며 10일에는 이보다 2300원 떨어진 24만 900원이었다. /연합뉴스

韓銀, 기준금리 年 3.25%로 또 동결

물가 보다 대외위기 우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11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연 3.25%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격월로 인상되면서 2008년 12월 이후 2년3개월만에 처음으로 지난 3

월 연 3.0%로 올라선 뒤 석 달만인 지난 6월 연 3.25%로 인상됐다. 이후 석달째 동결이다. 그동안 물가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으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여파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이 금리 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

연합(EU) 회원국들의 재정위기 우려가 높아지는 등 전세계적으로 경제·금융 관련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 등 고용지표도 호전되고 있어 이번 동결은 불확실성에 대한 '한시적 관망'일 뿐 국내 경기둔화를 우려한데 따른 것은 아니라는게 한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합뉴스

금융시장 안정... 주가·환율 소폭 상승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동요했던 금융시장이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 개선에 힘입어 모처럼 안정세를 보였다.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이틀째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코스피는 10일 전날보다 11.20포인트(0.62%) 오른 1817.44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미국과 유럽 주가지수의 폭락 소식에 72.32포인트(4.00%) 급락한 1733.92로 장을 출발했다가 점차 낙폭을 줄여 결국 반등에 성공했다. 이를 새 상승폭은 16포인트였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방안에 경기 부양에 불충분하다는 실망감에 간밤 뉴욕 증시가 폭락하자 코스피도 초반에 크게

내렸다. 특히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위기가설이 확산한 탓에 불안감이 더 커졌다. 시초가가 장중 최저가였고, 오전 11시40분께 1832.48로 장중 최고가를 찍었다. 개장 후 2시간40분 만에 위아래로 100포인트나 흔들렸던 것이다. 코스닥지수는 15.69포인트(3.46%) 오른 469.24로 마쳤다. 환율은 외국인의 증시 이탈 등 영향으로 1.80원 오른 1081.8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보해 복분자주 복날효과 '톡톡'

평소 판매량보다 120% 증가 "복날 보양식에는 복분자주가 최고" 복분자주가 복날 보양식과 잘 어울리는 술로 자리매김 하면서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해양조는 "중복인 지난달 24

일 전국 보양식 업소 440곳의 보해 복분자주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판매량이 평소보다 120% 증가한 3만병 이상 팔렸다"며 "말복인 오는 13일의 판매량도 기대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전국의 장어구이 업소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복분자주 판매량



이 증폭에 평소보다 170% 이상 증가했고 삼계탕·추어탕 등 보양식 업소의 판매량도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할인매장에서 중폭에 비해 복분자주의 판매량이 평소보다 82% 증가하는 등 복날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복분자주가 복날 인기가 높은 이유는 예부터 보양 회초의 명약으로 불린 복분자의 효능이 최근 입증되면서 '몸에 좋은 건강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해 측은 설명했다. 보해는 맞은년부터 '복날은 복분자주 마시는 날'이라는 주제로 '복(伏)-복(覆) 마케팅'을 벌여 판매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우어찜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행복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곡지구
 롯데빌딩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해태제과
 롯데제과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銀江 한정식

옛날방식 그대로

어머니의 손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여름철 고객님의 맛과 건강을 위해 銀江이 혼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삼계탕

옛날방식 그대로 모든 음식을 어머니의 고집대로 우직하게 재래식방범을 고집하고 있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단계 높은 한정식 먹거리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맑은 닭국
 ● 골국밥

銀江 한정식

동구 장동 51-4 (전남여고후문-복개도로)
 예약전화. 062. 227. 5986 · 4986